

2014년 4/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2015년 경제 전망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2015년 서울경제 전망	14
IV.	요약 및 시사점	18
	부록 : 2014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20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02-2149-1227
hspark@si.re.kr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고용은 주춤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3개월 평균 -1.0%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평균 1.7%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2014년 8월 하반기 공채 효과로 1%대 성장률을 보였으나 다시 둔화되어 2개월 평균 0.2% 성장하였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최근 3개월 평균 3.2%로 감소하고 있으나 10월 들어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하여 회복이 기대된다.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하락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미약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4/4분기에 전(前) 분기 대비 3.8p 하락한 92.5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생활형편지수」와 「현재경기판단지수」 또한 전 분기 대비 각각 3.2p, 1.5p 감소한 79.7, 59.2를 기록하여 현재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9p 감소한 75.3을 기록하였다. 「물가전망지수」 또한 128.0으로 3분기 연속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어 체감경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한 시점이다.

서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로 2015년에는 3.2% 성장을 전망

2015년 서울경제는 수출경쟁력 하락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서울시의 민생안정 등의 노력으로 회복세를 보여 2014년 대비 0.2%p 성장한 3.2%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함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또한 올해보다 0.6%p 상승한 2.7%로 전망된다.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최근 10개월간 평균 1.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2.0%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10월 들어 청년층 취업률이 플러스로 반전되어 2015년 실업률은 올해 대비 0.3%p 감소한 4.3%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

서울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영세사업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세 제조업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서울경제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서울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R&D 사업 지원 및 창조산업의 지역클러스터 네트워크화를 통해 지역과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고용은 주춤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10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최근 3개월간 평균 -1.0%로 감소
- 「산업생산지수」는 2014년 7월 8.0%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성장세가 감소하여 10월 들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6월 이후 4개월 동안 평균 12.3%를 기록한 중간재를 중심으로 생산율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 10월 급감하여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8%를 기록
- 부문별로 자본재와 중간재, 소비재 생산은 2014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 -11.3%, -5.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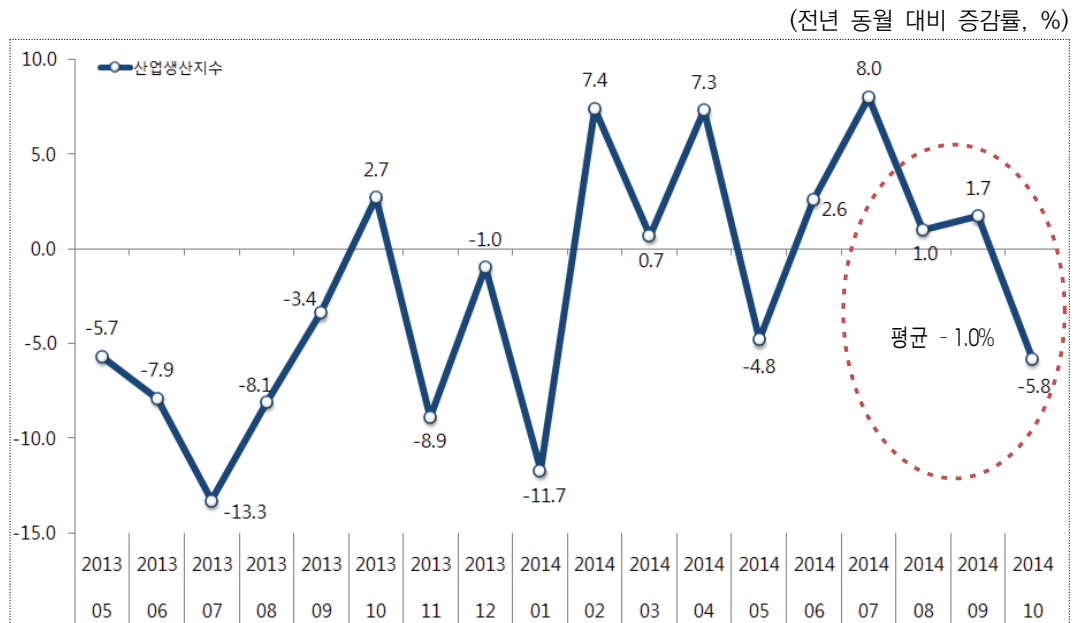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자료 : 통계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3개월간 평균 1.7% 증가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4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9%,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8%를 기록하고 있어 실생활용품 위주의 소비가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은 2014년 8월 9.4%로 하반기 최고치를 기록한 후 9월 -5.1%로 급감하였으나 10월 0.8%로 증가하여 최근 3개월간 평균 1.7%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상반기 평균 4.3%에서 하반기 4개월 평균 3.1%로 증감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연말연시의 계절적인 효과로 향후 회복세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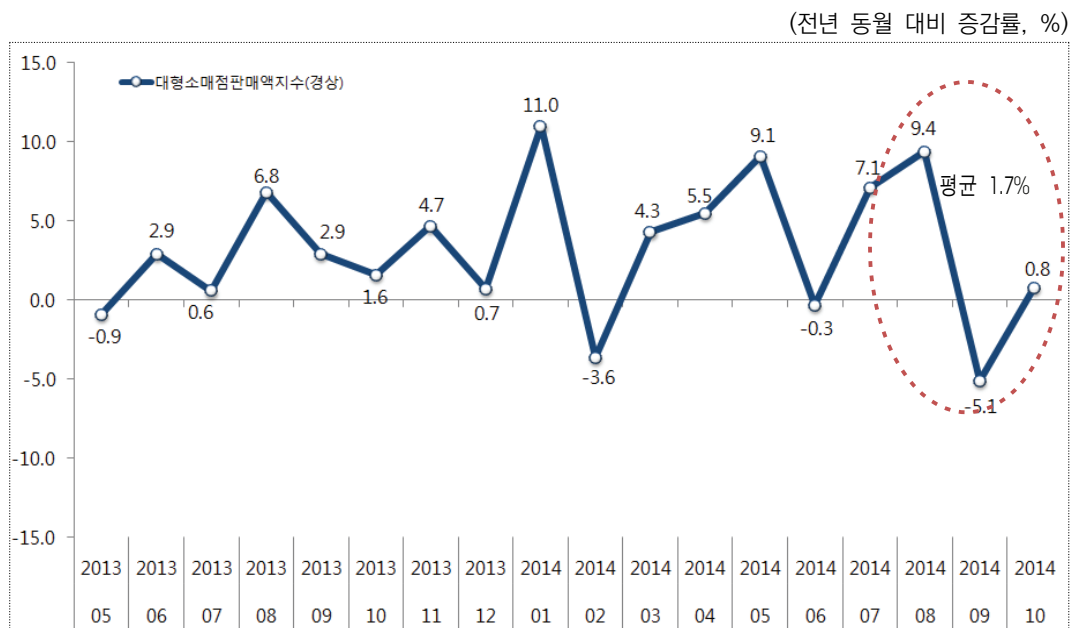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자료 : 통계청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증가율이 둔화

- 2014년 10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한 5,162명
 -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4년 8월 하반기 공채 효과로 1%대 성장률을 보였으나 증감률이 다시 둔화되어 2개월 평균 0.2% 성장
- 2014년 10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한 880명
 - 2014년 하반기부터 개선세를 보이는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감률은 2014년 10월 들어 8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
- 서울의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의 증가를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평균 0.5%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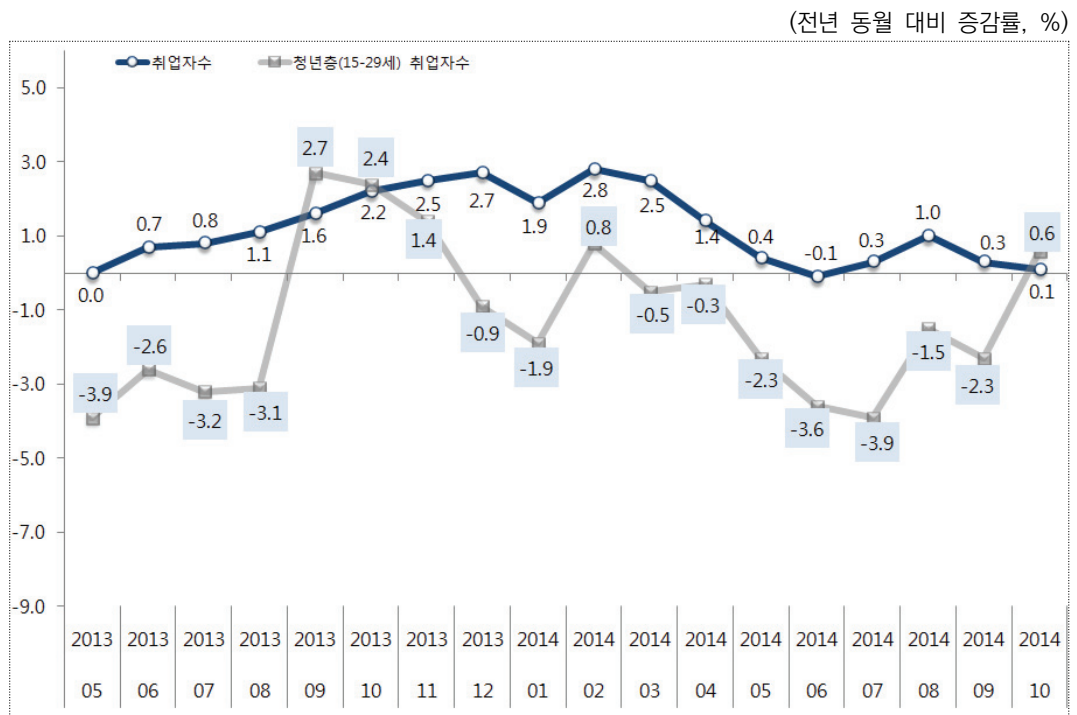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서울시민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

서울의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1년 중 최저치를 기록

- 2014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2.5로 전(前) 분기보다 3.8p 하락
 - 2013년 4/4분기(102.0)에 기준치(100)를 넘으며 기대심리의 회복을 보였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세 지속
- 수출 경쟁력 하락과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
-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경기하강 국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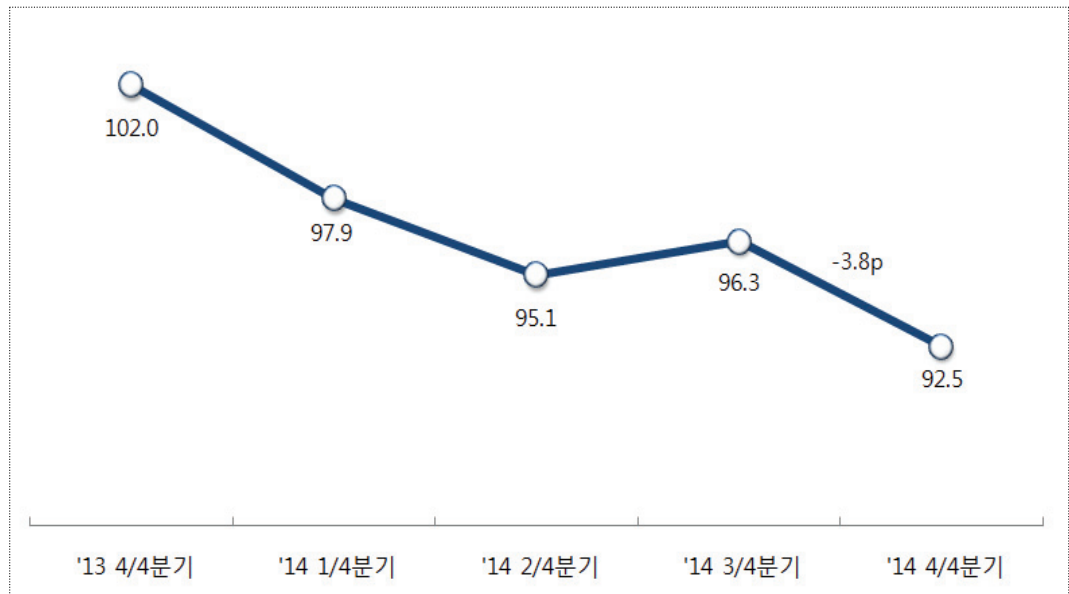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표준화지수임.

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

- 2014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3.2p 하락한 79.7, 「미래생활형편지수」는 5.6p 하락한 91.9를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4분기 연속 80대에서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4년 4/4분기에 70대로 하락하여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판단이 악화
- 「미래생활형편지수」도 2013년 4/4분기(101.8)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 또한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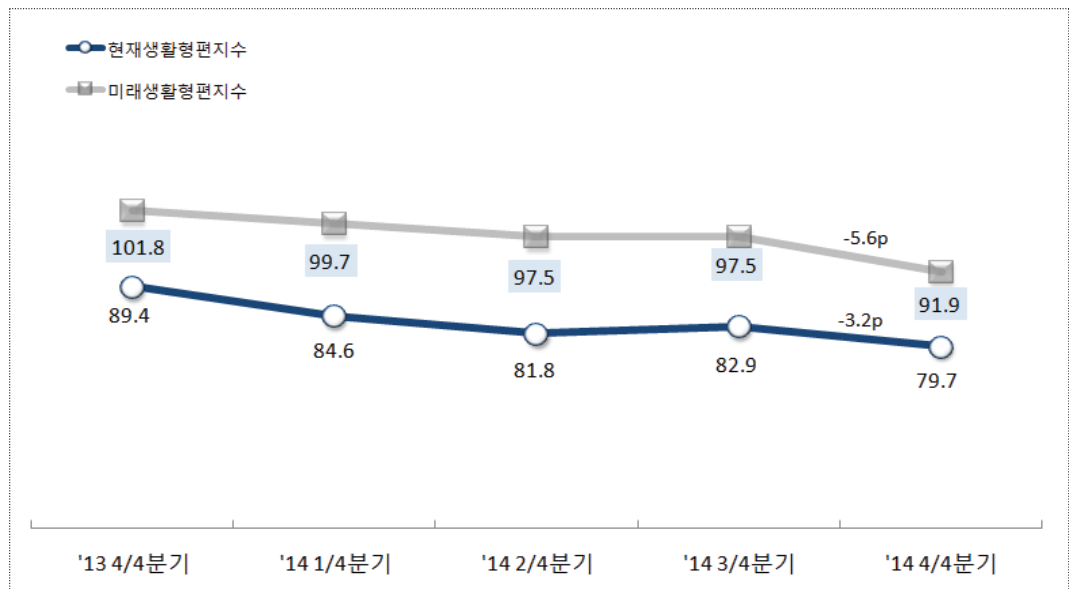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서울의 현재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

- 2014년 4/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5p 하락한 59.2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3년 4/4분기(71.5)를 정점으로 1년 동안 12.3p 하락하여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2014년 4/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1.7로 전 분기 대비 10.2p 하락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13년 4/4분기(96.8) 이후 90대에서 하향세를 보이다 2014년 4분기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81.7로 조사되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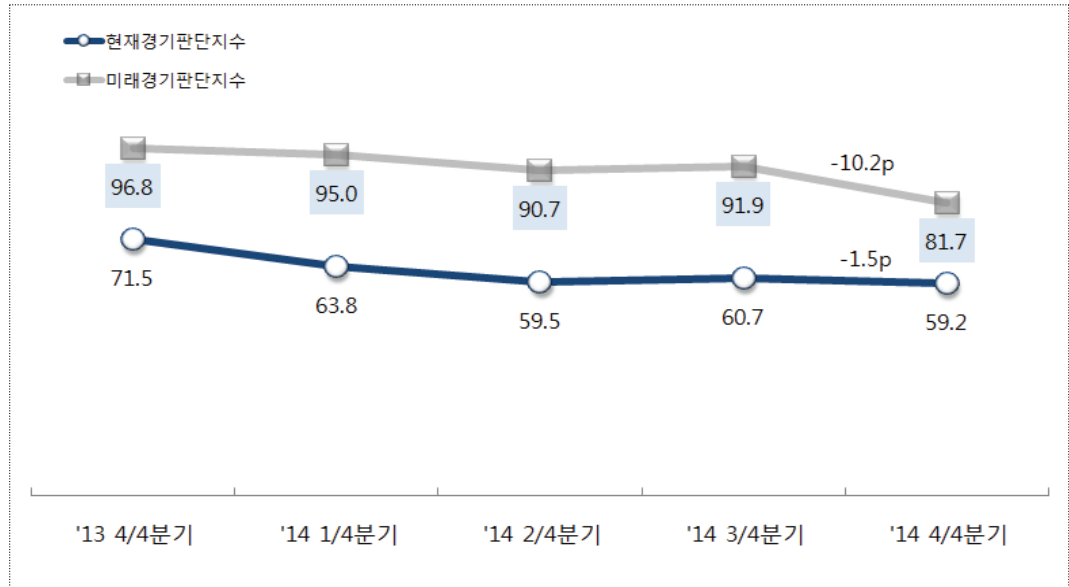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서울의 현재 및 미래 소비지출도 하락세

- 2014년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7.6으로 전 분기 대비 4.8p 하락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현재 지출한 돈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 내내 하향세로 지출수준은 감소
- 2014년 4/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하락한 98.4를 기록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14년 1/4분기 104.2로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향후 서울의 소비심리 개선 또한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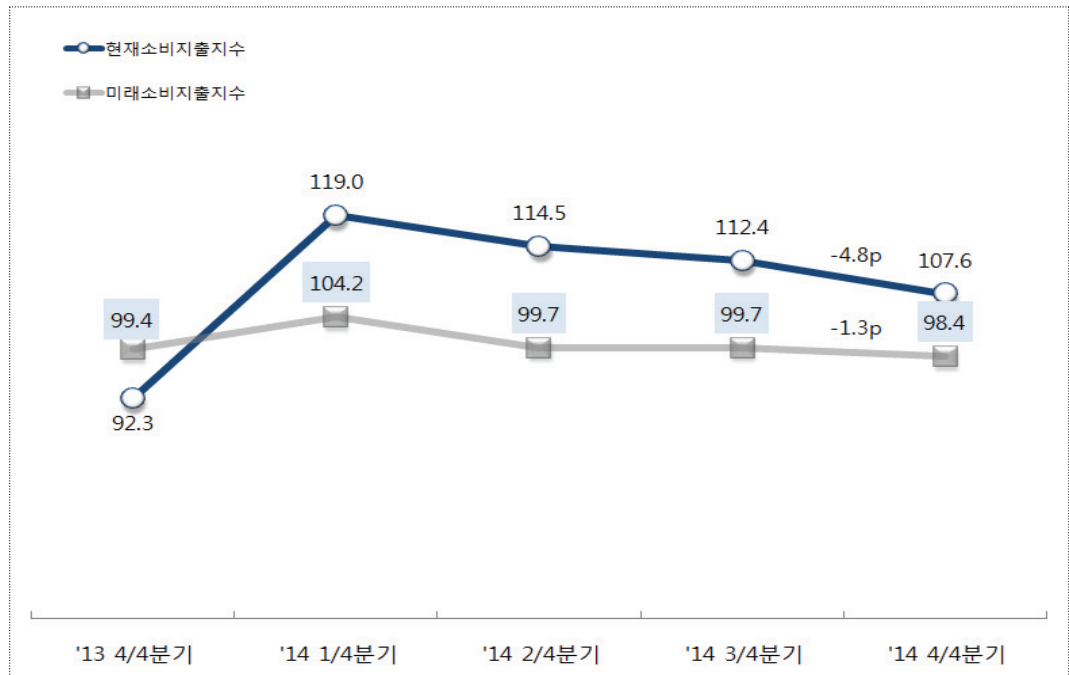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2014년 조사부터 1년 전 대비 현재 소비지출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 기존 지수 값과 차이가 있음.

품목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감소할 전망

- 전 분기에 비해 ‘교육비’는 1.4p 감소한 116.9, ‘교통/통신비’는 0.2p 감소한 101.9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
-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항목 중에서는 ‘교육비’가 전 분기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크지만 여전히 향후 가계 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증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
- ‘교육비’에 이어 ‘교통/통신비’ 또한 전 분기 대비 미래 소비심리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출 계획은 여전히 증가할 전망
- ‘주거비’는 전 분기 대비 3.2p 감소한 99.8, ‘식료품비’는 2.5p 하락한 95.7, ‘문화오락비’는 0.7p 감소한 90.2, ‘의류비’는 0.3p 하락한 85.5를 기록
- ‘주거비’는 전 분기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크고, ‘의류비’의 지수 값이 가장 낮게 기록되는 등 필수 생활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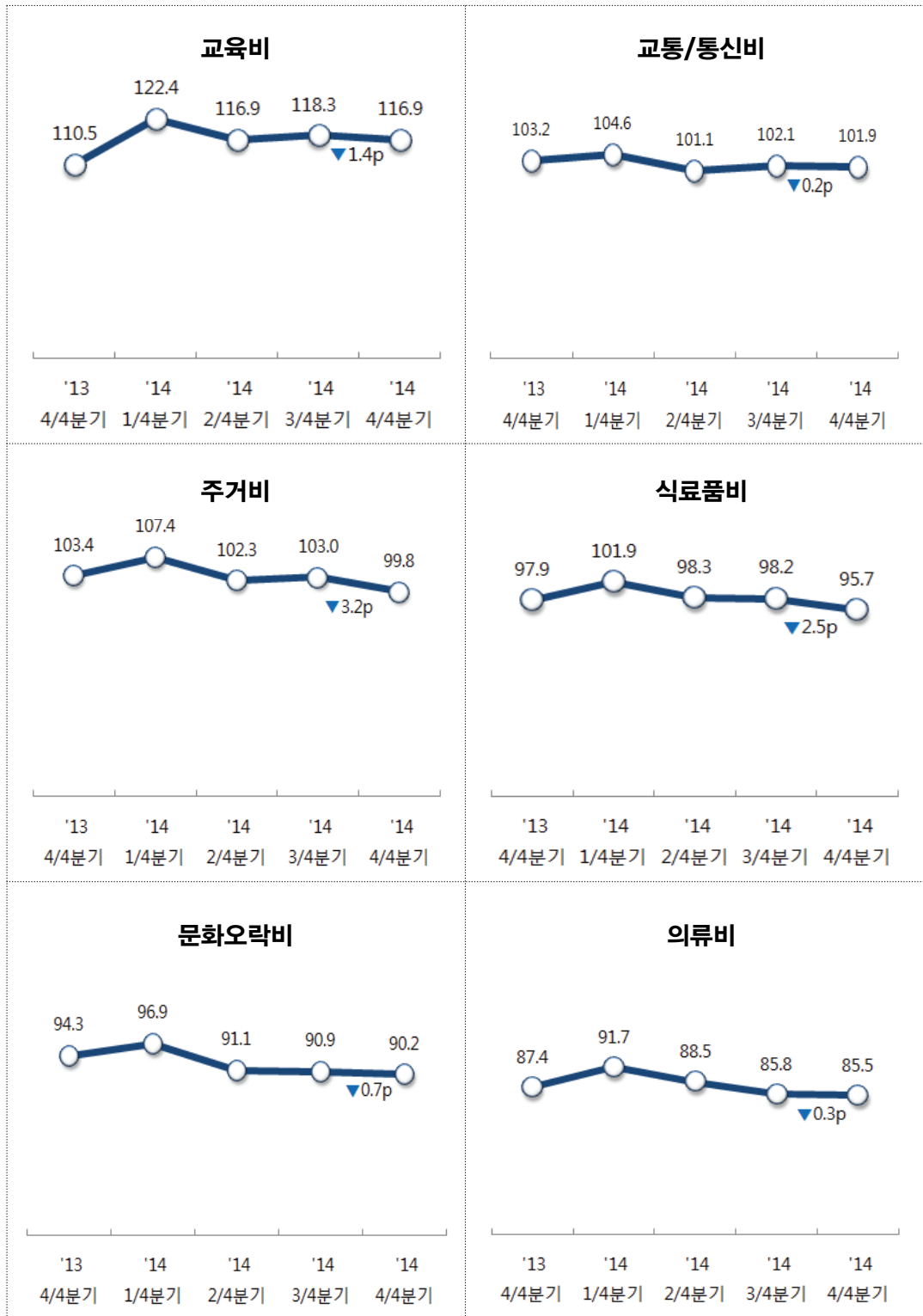


그림 8.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 모두 주춤

- 2014년 4/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p 하락한 94.9를 기록
 - 2013년 4/4분기는 99.1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년 동안 내구재 소비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6.1을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3.8p 하락
 - 2014년 1/4분기에는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 구입에 대한 태도지수가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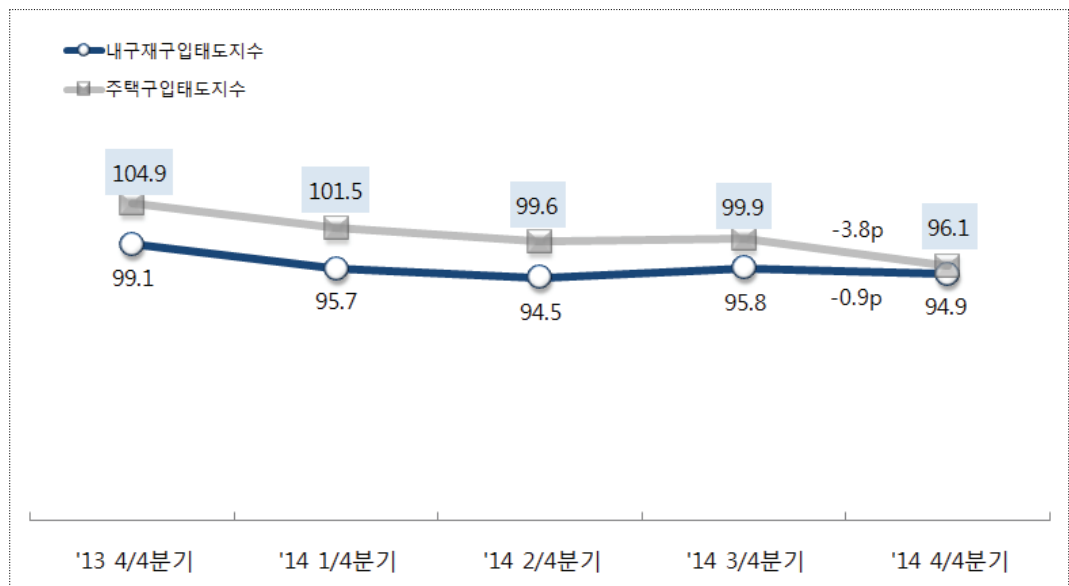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과 체감물가, 고용상황 모두 하향 전망

- 2014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 대비 2.4p 하락한 93.7로 4분기 내내 하향세를 유지
- 2014년 4/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5.6p 하락한 128.0으로 향후 체감 물가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2009년 조사 이래 3분기 연속 최저치를 갱신
- 2014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5.3으로 전 분기 대비 10.9p 감소
- 최근 2013년 이후 「고용상황전망지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격히 하락하여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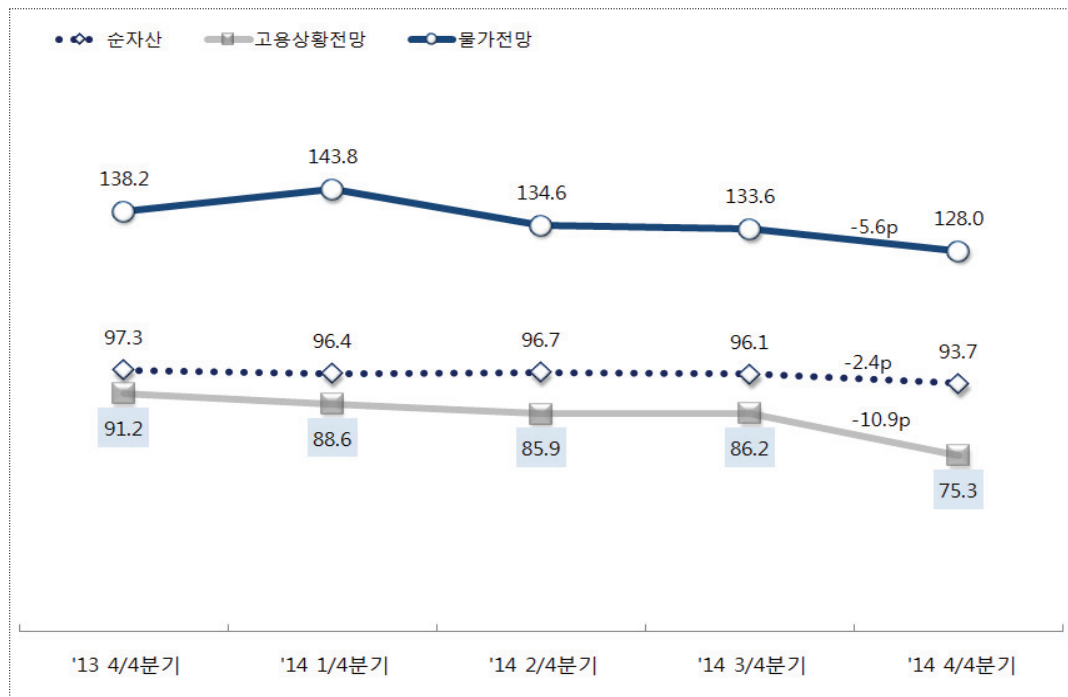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순자산, 고용상황전망, 물가전망지수

Ⅲ. 2015년 서울경제 전망

2015년 서울경제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

2015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2%로 전망

- 2015년 서울경제는 민생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한 3.2%의 성장이 예상
-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 하락, 유럽·아시아의 경제 부진 등 대외 위험 요인은 상존 하지만 대미 수출 증가세의 지속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연간 3.2% 성장을 전망
- 2015년 서울의 성장률은 전국보다 0.6%p 하회
-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비심리 부진으로 서울의 성장률은 전국 전망치 3.8%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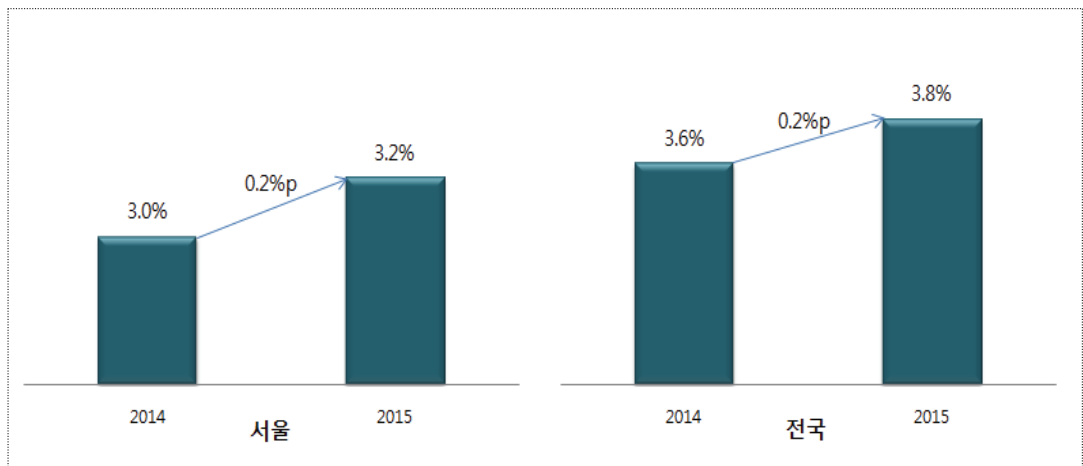


그림 11. 2015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4.10.15), 현대경제(2014.10.02), OECD(2014.11.25), POSRI(2014.11.05) 전망치 평균

2015년 서울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2.7%로 전망

- 2015년 서울의 소비지출은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어 올해보다 0.6%p 증가할 전망
- 과거 10년간 전국의 민간소비지출은 경제성장률의 70~80%를 점유하고 있고 소비 중심의 서울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2015년 민간소비지출은 2.7% 성장을 전망
- 2015년 서울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국보다 0.4%p 하회
- 민간소비지출은 경제성장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나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소비 증가율보다는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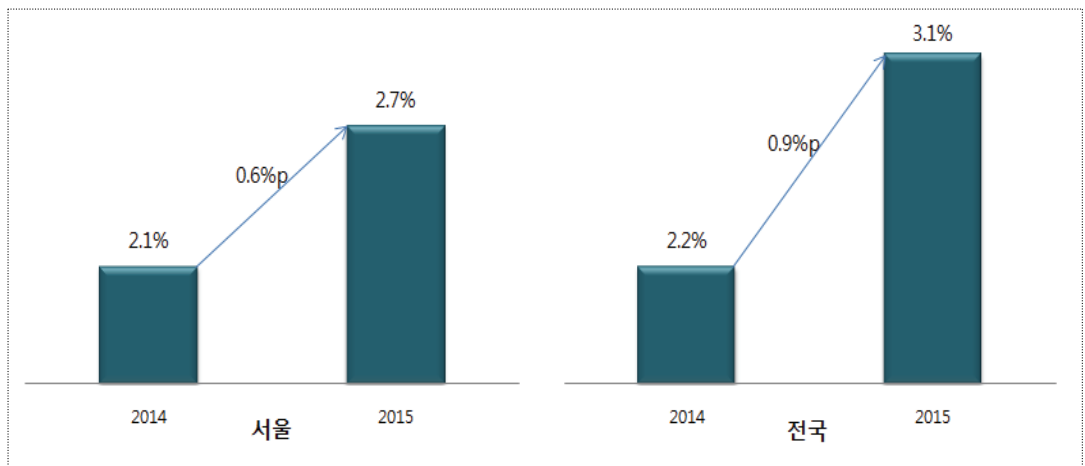


그림 12. 2015년 서울 및 전국의 민간소비지출 전망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4.10.15), 현대경제(2014.10.02), OECD(2014.11.25), POSRI(2014.11.05) 전망치 평균

2015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2.0%로 전망

- 2014년 들어 최근 10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6%를 기록하고 있어 2015년 물가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2.0%로 전망
- 서울경제는 점진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5년 물가상승률 또한 2014년보다 0.4%p 상승한 2.0%로 예상
- 2015년 전국의 물가상승률은 2014년 대비 0.7%p 상승한 2.3%로 예상

- 최근 유가 안정세 지속 등 물가 상승 요인의 부재로 2014년 평균 1.3%의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내수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2015년 물가를 2.3%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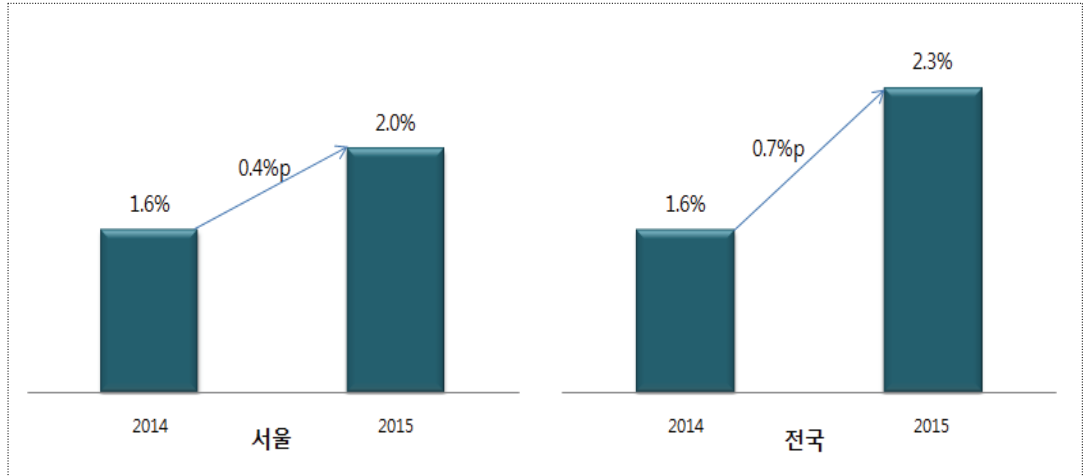


그림 13. 2015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4.10.15), 현대경제(2014.10.02.), OECD(2014.11.25.), POSRI(2014.11.05) 전망치 평균

2015년 하반기 서울의 실업률은 4.3%로 전망

- 2014년 들어 서울의 실업률은 10개월 평균 4.6%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고용률의 증가 추세로 서울의 2015년 실업률은 이보다 낮은 4.3% 전망
- 10월 들어 청년층 취업의 증감률이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한 가운데 하반기 공채와 고령층 취업률의 증가에 기인하여 2015년 실업률은 2014년 대비 0.3%p 낮은 4.3%로 예상
- 2015년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전망치 3.3%보다 1.0%p 상회
- 장년층을 중심으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층이 많은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보다는 높지만 비슷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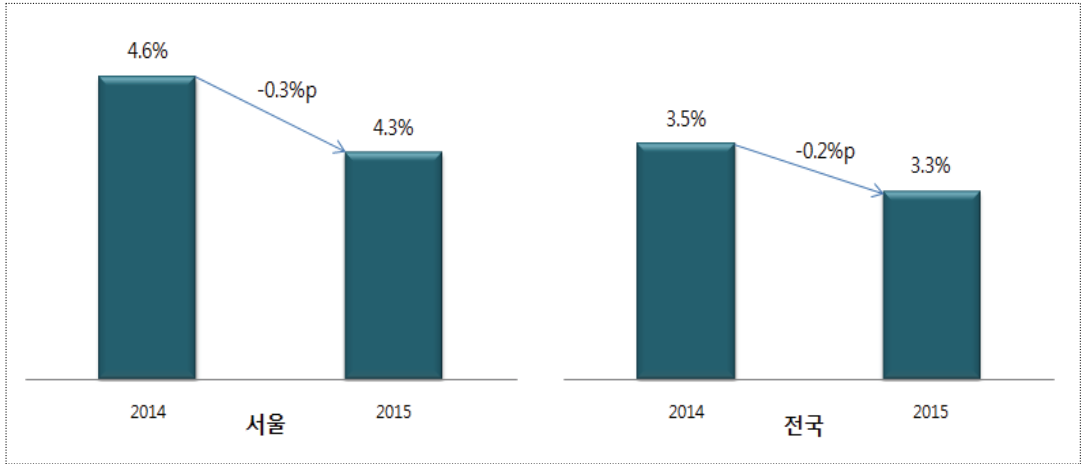


그림 14. 2015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4.10.15), 현대경제(2014.10.02), OECD(2014.11.25), POSRI(2014.11.05) 전망치 평균

IV. 요약 및 시사점

서울경제는 완만한 회복으로 2015년 3.2% 성장을 전망

서울시민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4/4분기에 92.5로 1년 중 최저치를 기록
- 2014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79.7,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9.2로 전 분기 대비 각각 3.2p, 1.5p 감소
- 「현재 및 미래 소비지출지수」 또한 감소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며 모든 품목에서 향후 소비지출을 줄일 것으로 조사
-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각각 0.9p, 3.8p 감소한 94.9, 96.1을 기록하였으며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전망지수」 또한 각각 10.9p, 5.6p 하락하여 2009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갱신

2015년 서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로 3.2% 성장이 전망

- 2015년 서울경제는 서울시의 민생안정 등의 노력으로 민간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보여 3.2%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
- 대외 위험요인은 상존하지만 대미 수출 증가세의 지속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015년 민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7%로 전망
-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0개월 평균 1.6%를 기록하고 있어 2015년 물가는 이보다 상승한 2.0%로 예상
- 최근 청년층 취업의 증감률이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장년층 중심의 보건·사회복지 분야 취업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2015년 실업률은 올해 대비 0.3%p 낮은 4.3%로 전망

내수시장 회복, 서울경제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영세상인의 보호와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회복

- 서울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지원과 협동조합 육성 등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대책을 강구
-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생활 지원 대책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공존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 및 지원기반 구축을 강화
-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형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근간을 마련
- 영세 제조업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서울경제의 내실화를 도모
- 서울은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의류, 구두 등 영세 제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내실화를 도모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통해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 심리를 유도

창조산업 및 R&D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

- 고부가가치 산업에 전문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강화로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도록 R&D 지원 강화, 지역 간 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화 등 미래 성장 역량을 확보
- 서울의 3대 창조산업인 문화예술, 지식서비스, 장인형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및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성장기반을 강화

부록 : 2014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3년 4/4분기	102.0	89.4	101.8	71.5	96.8	99.1	104.9
2014년 1/4분기	97.9	84.6	99.7	63.8	95.0	95.7	101.5
2014년 2/4분기	95.1	81.8	97.5	59.5	90.7	94.5	99.6
2014년 3/4분기	96.3	82.9	97.5	60.7	91.9	95.8	99.9
2014년 4/4분기	92.5	79.7	91.9	59.2	81.7	94.9	96.1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3년 4/4분기	92.3	99.4	97.3	91.2	138.2
2014년 1/4분기	119.0	104.2	96.4	88.6	143.8
2014년 2/4분기	114.5	99.7	96.7	85.9	134.6
2014년 3/4분기	112.4	99.7	96.1	86.2	133.6
2014년 4/4분기	107.6	98.4	93.7	75.3	128.0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4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14년 11월 중하순).